

TIPLONews 한국어본

2024 년 6 월호(K298)

이달의 주제

K240504X1

K240504Y1

01 Pegavision 은 Yung Sheng 과 Hydron 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 제소

대만 Pegavision¹⁾은 5 월 3 일에 있었던 중요 사실의 공시를 통하여, 대만의 Yung Sheng²⁾과 중국의 Hydron³⁾을 상대로,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발표했다. Pegavision 은 동업자에 의한 권리 침해라는 악습을 근절하고 자신들의 특허권이 계속 손해를 입는 것을 피하는 동시에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로 이루어 낸 경쟁의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앞에서 언급한 피고에게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정지하고, 예방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하고 있다.

Pegavision 은 Yung Sheng 이 제조하고 Hydron 등 브랜드를 갖는 콘택트 렌즈 제품이 자사의 발명 특허를 침해한 혐의를 발견하였다. Yung Sheng 및 Hydron 이 제조 및 판매한 많은 제품이 자신들이 소유한 대만특허 제 I634205 호 「콘택트 렌즈를 처리하기 위한 용액」 및 제 I671086 호 「안과상품 및 그 안과 완제품」의 발명특허가 갖는 권리범위에 속하기에, 이는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혜재산 및 상업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Yung Sheng 와 Hydron 은 모두 Ginko 그룹 ⁴⁾에 소속돼 있다. Ginko 그룹 산하에는 Yung Sheng, Hydron, Jiangsu Horien⁵⁾ 등 주요 자회사 3 곳이 있으며 콘택트렌즈와 세정액의 제조, 그리고 그런 제품의 판매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Pegavision 이 특허권 침해를 제소한 건과 관련하여 Ginko 그룹은, 상품 판매 전에 특허권 침해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분석 평가를 통해 상품에 특허권 침해의 우려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발매하고

있으며, Pegavision 은 특허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Ginko 에서는 전술한 상품 판매전 사전 분석 절차를 실시하였기에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4.05)

역주:

- 1) 중국어명 晶碩光學股份有限公司, 영어명 Pegavision Corporation (Pegavision)
- 2) 중국어명 永勝光學股份有限公司, 영어명 Yung Sheng Optical Co., Ltd (Yung Sheng)
- 3) 중국어명 海昌隱形眼鏡, 영어명 Hydron Contact Lenses (Hydron)
- 4) 중국어명 金可國際股份有限公司, 영어명 Ginko International Co., Ltd. (Ginko 그룹)
- 5) 중국어명 江蘇海倫隱形眼鏡有限公司, 영어명 Jiangsu Horien Contact Lens Co., Ltd (Jiangsu Horien)

TIPLO
Attorneys-at-Law

02 타이난(台南)의 유명 식당 「Asha 반점」 상표권 침해 소송, 2심서 뒤집힌 판결

대만 남부도시 타이난(台南)에 있는 유명 레스토랑 「Asha 반점」¹⁾의 친척간에 다투고 있는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지혜 재산 및 상업 법원은 1 심에서 우젠하오(吳健豪) 등이 「Asha」, 「Asha 반점」 등의 명칭으로 택배 상품이나 온라인 쇼핑의 서비스를 판촉 선전한 행위에 상표권 침해는 없다고 판결하였지만, 2 심에서는 우젠하오(吳健豪) 등에게 계약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대만화폐 450 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고 판결하며 1 심 판결을 뒤집었다. 본 건은 더 상소할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sha 반점」은 원래 창업자인 우진샤(吳錦霞)와 그의 다섯째 동생인 우서우춘(吳壽春)(Asha 반점의 수석 요리사이자 현재 「Asha 반점 인터넷 쇼핑몰」 수석요리사)의 공동 경영이었다. 2009 년 4 월 우진샤(吳錦霞), 우롱찬(吳榮燦)(둘째 동생인 우빙송(吳炳雄)의 아들) 그리고 우칭롱(吳靑蓉)(우서우춘(吳壽春)의 딸)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 약정 외에 우진샤(吳錦霞)는 「Asha」, 「Asha 반점」 상표권을 우롱찬(吳榮燦)과 우칭롱(吳靑蓉)에게 양도해 각각 소유 또는 공용하게 하였는데, 실제 점포 경영권은 우롱찬(吳榮燦)에게, 온라인 경영 소유권은 우칭롱(吳靑蓉)에게 각각 귀속시키는 약정을 맺었다. 이후 우진샤(吳錦霞)는 2010 년 57 월 「Asha」, 「Asha 반점」 상표를 우칭롱(吳靑蓉), 우젠하오(吳健豪), 우롱찬(吳榮燦)의 아들)등에게 각각 양도했다.

2020 년 창업자인 우진샤(吳錦霞)가 사망한 후 우칭롱(吳靑蓉)은 우젠하오(吳健豪)등이 계약을 위반하여, 인터넷 판매에 뛰어들어 「Asha」, 「Asha 반점」 등의 명칭으로 택배 상품과 온라인 쇼핑의 서비스를 판촉 선전하고 심지어 언론의 취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양측은 법원에서 다투게 되었다. 1 심에서는 우젠하오(吳健豪) 등에게 위약은 없지만, 또 다른 브랜드 「진샤러우(錦霞樓)」는 소비자에게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 권리 침해에 대해 대만화폐 50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후 쌍방은 각각 상소하였고 2 심에서는 우젠하오(吳健豪) 등에게 계약위반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따라서, 우칭롱(吳靑蓉)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또는 타인과 협력하여 디지털 비디오, 전자 매체, 네트워크 또는 기타 유사한 디지털 형식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매체를 이용하여 「Asha」, 「Asha 반점」과 동일 또는 유사한 한자, 영어 문자를 광고 선전, 홈쇼핑, 온라인 쇼핑, 통신 판매, 인터넷 소매 등의 서비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우젠하오(吳健豪) 등은 연대하여 대만화폐 450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전체 사건은 추가로 상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4.05)

역주:

- 1) 중국어명 阿霞飯店, 영어명 Asha restaurant (Asha 반점)



K240514Z5

K240513Z5

03 4 대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춘, 대만-호주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하이테크 외교에 새로운 장 마련

대만 행정원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¹⁾는 2023년 10월에 호주의 산업과학 자원부를 방문하여, 대만 호주간의 과학기술 협력 협정(Science and Technology Arrangement, STA)의 체결을 제안하였고, 양측은 반년간의 검토와 계획을 거쳐, 5월 13일 협정을 무사히 체결했다. 이로써 호주는 대만이 5번째로 STA를 체결한 나라가 되었다. 쌍방은 향후 4개의 중점 분야 - 정보통신 산업의 제조, 반도체 기술 및 유연한 핵심기술 공급망, 생명공학 및 넷제로로의 이행 - 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대만과 호주 양측의 이번 STA 체결은 2012년 체결한 협력각서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양측이 서로의 과학기술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회 협정의 틀에서 양측은 향후 과학기술 연구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제휴의 범위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하면, 2020년말부터 4년간에 대만과 미국, 대만과 독일, 대만과 프랑스, 대만과 캐나다, 그리고 대만과 호주의 STA를 체결해, 22항목의 전략적 연구 제휴나 인재 교류 프로그램이 이루어졌고, 협력 항목에는 반도체, 양자, 인공지능, 넷제로, 생물 의학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중요한 협력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2024.05)

역주:

- 1) 정식명칭은 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 영어로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 과학기술협력협정은 중국어 科技合作協議, 영어로 Science and Technology Arrangement, 약칭 STA를 지칭한다.